

따뜻한 밥 한끼로 이웃사랑 실천

삼광사 지장회 무료급식 봉사 4년째 이어와



삼광사 지장회는 무료 열불 공양은 물론 무료급식 봉사도 4년째 이어오고 있다.

매일 셋째주 목요일 지장회 봉사자들은 부산 진구 초읍동에 위치한 어린이대공원의 무료급식소를 찾는다. 3월 21일, 배식 시간까지는 아직 30여분이 남았지만 삼삼오오 모여 앉아 담소를 나누거나 줄을 서서 기다리는 어르신들로 급식소는 이미 만원이었다. 급식이 진행되는 불과 30여분 동안 이곳을 다녀가는 사람은 평균 300여 명이라고 한다.

정해진 공양시간이 되자 일사분란하게 공양 준비를 마친 봉사자들은 어르신들이 앉아 있는 자리로 직접 음식을 옮겨 나르며 먹음직스럽게 한 상 차려냈다. 지장회 강재복 회장의 얼굴에도 웃음이 한가득이다. "이 곳에서 먹는 점심이 하루 중 유일한 끼니가 된다는 어르신도 있습니다. 부모님 생각도 나고 정할 때도 있지만, 즐거운 마

20년간 영가 위한 열불공양 이웃나눔 실천하는 급식봉사

음으로 입하려고 노력해요. 한 끼 식사라도 즐겁고 행복한 기운이 전해지면 좋겠습니다."

지장회가 '아름다운 사람들'에서 급식봉사를 시작한 것은 불과 4년 전부터였다. 삼광사는 바로 지척에 위치한 어린이대공원 무료급식소 운영에 힘을 보태고자 했고, 지장회가 그 역할을 맡게 된 것이다.

때문에 사찰에서의 지원도 적극적이다. 급식봉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와 식재료 등 물품지원은 물론, 많은 인원이 함께 움직이는 열불봉사 때에는 차량도 지원한다. 무원 스님이 주지로 부임해온 뒤에는

경내에 지장회를 알리는 현수막을 내걸고 불자들의 동참을 권장하기도 했다.

강재복 회장은 "절에서 다각도 지원을 아끼지 않으니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지요. 또 주지스님은 사회복지 활동에 관심이 많고 적극적인 분이기에 삼광사 신도로서도 기쁘게 돕습니다."며 연신 자랑이 끊이지 않았다.

삼광사 지장회는 이름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 상가商家 열불공양봉사를 위해 출발한 신행모임이다. 20여명의 임원진과 대의활동에 적극 동참하는 불자들은 평균 50명이며, 후원회원만 250여명에 달하는 대규모 신행팀으로, 열불공양은 삼광사 신도와 불자, 비종교인을 막론하고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 어디든 달려간다. 그렇게, 고인의 왕생극락과 유가족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 지성으로 기도해온 지 20년이 훌쩍 넘었다.

열불봉사에는 매년 삼광사 스님들이 범주로 참여해 격식과 엄숙함을 더해왔는데, 회원들은 스스로의 역량 증진을 위해 4월 19일부터는 지도법사 스님을 모시고 시다림 교육을 시작할 계획이다. 바쁜 일상 속에 느린 듯 서두르지 않는 이들의 행보에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자비나눔의 원력이 응축되었음이 분명했다.

하하호호 유패했던 일과가 끝나고, 다음을 기약하며 일상으로 돌아가는 지장회 봉사자들의 모습에서 "마음이 시켜 하는 일에 몸의 피로는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는 무언의 메시지가 전해졌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부산 신교통문화 실천에 앞장

승가연, 가구경행 복원사업 시작



부산승가연협회는 신교통문화캠페인을 펼친다.

부산불교승가연협회(회장 법민스님)는 4월10일 부산역 광장에서 '맑고 향기로운 부산을 만드는 신교통문화캠페인'을 개최했다.

회장 법민 스님(수덕사 주지)은 "신교통문화 실천에 앞장서는 것은 중생들의 이고득락을 기원하는 것"이라며 "교통사고 없는 행복한 부산을 위해 웅장진과 나아가 승가의 전통행사인 '가구경행' 복원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승가연협회는 가구경행 복원을 위한 3대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불교의 전통문화로 전승·발전시킨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 상설기구로 정착시킨다. △승가의 본원으로서 사부대중이 함께 참여하

여 불교화합의 기틀을 삼는다.

한편, 가구경행이란 고려 정종12(1406년)년에 처음 시행된 연중행사로 음력 2월에 국리민복을 위해 백성의 질병과 재앙을 물리치기 위해 승려들이 도성의 거리를 돌며 목탁을 치고 향불을 피우던 국가행사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안동 청소년 문화센터 개관



안동청소년문화센터 개관 장면

고운사의 재단법인 고운청소년재단은 4월 11일 청소년 수련시설인 '안동 청소년 문화센터'를 개관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고운청소년재단 이사장 호성 스님, 김관용 경북지사 등 각계 인사 700여 명이 참석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치사를 통해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이곳에서 나와 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안동 청소년 문화센터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됐으며 밴드실과 북카페, 공예실, 다도명상실 등 청소년과 지역 주

민을 위한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특히 민간 청소년시설로는 최초로 자치단체로부터 건축비와 운영비를 지원받았으며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경애 영주지사장

호스피스센터 창립 3주년

대구 불교 호스피스센터 창립 3주년 기념법회가 4월 8일 대구불교방송 7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법회에는 센터장 다정 스님을 비롯한 200여명의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다정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더 많은 병원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2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소속돼 있는 대구 불교호스피스센터는 지난 2010년 4월 창립 이후 경북대병원과 대구의료원 등 5개 병원에서 말기암 환자들을 위한 호스피스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손문철대구지사장

제9회 부산차밭골문화제

부산차밭골문화제 봉행위원회(봉행위원장 혜성스님, 집행위원장 최순애)는 4월6일~7일 양일간 금정산 금강사에서 '제9회 부산차밭골문화제'를 개최했다.

행사는 첫째날 한일도예작가 교류전, 다실명전, 둘째날 금정산 고당봉 물씨이온식, 금정산 수호령신 고당 선량 다례제, 백화만발공양다례제, 강연 등이 진행됐다. 부산차밭골문화제의 메인 행사 할 수 있는 백화만발공양다례제에는 금강사 주지 혜성 스님, 김석조 부산시의회 의장, 박권희 한국차인연합회 회장, 이미지 부산차문화진흥원 원장 등 500여 명의 차인과 시민들이 참석했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캠페인

렌즈속 현장 - 도량을 도량답게 가꾸자

문화재보호펜스도 중요한 경관

전통사찰은 우리나라 문화재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성지이다. 문화재는 다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로 구분하며, 문화재의 가치와 관리주체에 따라서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 그리고 문화재자료로 나뉜다.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문화재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원형을 보호하게 된다. 문화재로 지정된 불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각을 짓고, 외부에 노출된 마애불이나 비석 등 석조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각을 짓는 것 등이 바로 문화재의 원형유지를 위한 방법이 된다. 또한 석탑이나 석등, 노거수(오래된 나무) 등 외부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점적 형태의 문화재는 보호펜스를 둘러서 문화재의 원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사찰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화재보호펜스는 사찰마다 제 각각이어서 통일성이나 통일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재료의 특성상 녹이 슬기도 하고, 반짝거리기도 해서 문화재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들도 많다.

문화재보호펜스는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재를 관람하는데 방해가 되어서는 안되며, 문화재보다 먼저 눈에 띄어 문화재가 시각적으로 위축되어서도 안 된다. 또한 문화재의 성격과 잘 조화될 수 있는 재료와 디자인의 선택 역시 매우 중요한 요

인이다. 이러한 재료선택이나 디자인기준은 문화재청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일이지만 불교계에서 애정을 가지고 연구하고, 실험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만들어내야 한다. 문화재 가운데에서도 사찰에 소장된 문화재는 신앙의 대상이기 때문에 일반 문화재와는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가까운 일본의 사찰을 가보면 문화재보호펜스가 눈에 잘 띄지 않도록 그리고 문화재와 잘 조화되도록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태리나 프랑스 심지어는 중국 등 문화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에서도 문화재에 관련된 시설은 매우 신중하게 디자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화재보호펜스는 사찰전체의 규모에 비해서는 너무나 작은 시설물이다. 그러나 문화재를 보호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문화재와 더불어 지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시설물이다. 문화재보호펜스도 사찰에서는 중요한 경관요소라는 인식이 요구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녹이 슬 문화재보호펜스는 문화재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 경기도 사찰

불교계에 새로운 선물을 일으켜 세울 혁신적인 휴대용 시청각 경전학습기 아이센스 탄생!



신제품 경전학습기

보고 · 듣고 · 배우는~

첨단혁명의 간편한 휴대용 시청각 경전학습기!

불교대학에서 의식을 공부하시는 주지스님, 학인스님, 행자스님, 천도재, 상단불공, 시식 등의 의식을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많으시죠?
어려운 경전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쉽도록 인도하는 **첨단 불경 해석 학습기!**

염불(念佛), 염송(念誦) 모음

■ 염송경

반야심경, 천수경, 불설아미타경, 금강반야바라밀경, 원각경, 관세음보살보문품, 이산해연선사 발원문, 불설 약사여래본원경, 화엄경 보현행원품, 화엄경 약장계, 초발심자경문, 무상계, 의상조사 법성계, 장엄염불, 부모은중경, 백발대참회문, 대불정능염심주, 지장보살본원경, 천지필양심주경, 보광삼매론

■ 염송의법

송주편, 예경편, 불공편, 천도재 · 49재편, 시식 · 영반편, 장의편, 점안편, 이운편, 의식편, 기타편

경전학습기에는 영어 · 중국어 · 일어의 회화기능 외 여러가지 부가기능까지~

- **통역기능** : 기존 번역기와는 차별화된 120문장의 정확한 4개국어 통역기능까지
- **회화강좌** : 영어, 중국어, 일본어 생활회화 강좌기능
- **전자사전** : 옥스퍼드, 동아프라임, 민중넷센스, 현대국문, 수능 및 토출단어장 시중에서 25만원에 판매하는 전자사전과 동일한 콘텐츠 탑재
- **녹음기능** : 고성능 마이크가 내장된 선명한 음질의 녹음기능

신한M&B 경전학습기 사업부 (02)2061-9924~5 신청하시던 태백로 다음날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010-2950-9398